

# 34

## 죄 많은 시대의 예레미야

렘 1, 36장

찬송가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19장 (어두운 밤 길에서)

### 오늘 배울



1.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 42년간 눈물을 흘리며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압니다.
2.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렘 1:7~8)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 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렘 5:1)



## 을 이해하기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때부터 남 유다의 멸망 이후까지 약 42년간 남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요시아 왕이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이방 제단들을 없앨 때 그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선지자의 일을 맡기시면서 동족들에게 전할 말을 그 입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남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실제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은 그에 반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악한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워 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시드기야 11년에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남 유다의 멸망 이후 반역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동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 하다가 배척을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다 배척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렘 1:7~8)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a youth,' For you shall go to all to whom I send you, And whatever I command you, you shall speak. Do not be afraid of their faces,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says the LORD (Jr 1:7~8)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평강의 메시지에 젖어있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하나님께서 20세 전후인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당 절을 찾아보고 정리해봅시다(렘 1장).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찾아 적어봅시다(렘 1:14~17).

3

하나님께서 남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칠 것이지만 예레미야를 이기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렘 1:18~19).

4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을 핍박한 백성들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날 나는 복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지 적어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렘 1:7

---



---



---



---



---



---



---



---

의

막 16:15

---



---



---



---



---



---



---



---

화

행 20:24

---



---



---



---



---



---



---



---

↑

고전 2:16

---

---

---

---

---

---

---

---

↓

딤후 2:4

---

---

---

---

---

---

---

---

↓

딤후 5:8

---

---

---

---

---

---

---

---

↓

딤후 4:2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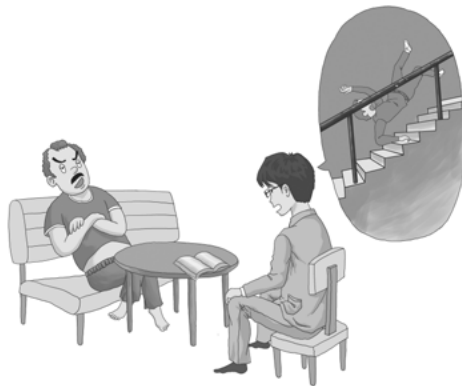
## 회개하지 아니하면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구 내에 주정뱅이고, 도박꾼이고,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른 아침에 파랗게 질려 에드워즈 목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날부터 그는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자 그의 발걸음은 교회에서 뜸해지고 점점 열심이 없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도 다시 조금씩 마시고 도박도 조금씩 손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그를 보고 불러 그가 본 꿈의 환상을 상기시켜 주었으나 그는 “글쎄요 글쎄요”하면서 더욱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드디어는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제는 목사님 계도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무얼요, 개 꿈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습니까?”라고 하더랍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어떤 술집에서 만취가 되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목이 꺾이어서 급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즈 목사가 일기장을 찾아보니 그 날이 바로 1년 전 그가 자기를 찾아온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징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백한 경고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 10:29)**



질문 있어요~



에스겔 9장에 등장하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에스겔 8장은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 큰 징벌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여기서 에스겔 9장 2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범죄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온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땅에 나타난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있었습니다(창 18:1~19).

한편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부분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먼저 언급된 천사들이 살육에 쓰이는 물건을 든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들고 있고,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베옷은 정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삼상 2:18, 단 10:5, 12:6). 먹그릇은 잉크를 담은 뿔(horn)을 가리키며 이것을 허리에 차는 것은 서기관이나 혹은 국가의 관리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들고 있는 천사는 죄인들을 살육하는 임무를 맡은 다른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천사로 여겨집니다.